

동해해수청, 하반기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 조사 - 12월 6일까지 근로여건, 인권침해 등 조사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재영)은 연근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어선원에 대하여 인권침해 및 이탈, 불법체류 방지와 불합리한 근로여건과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하여 10월 28일~12월 6일까지 관내 외국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근로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실태 조사는 선원노조, 해양경찰서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진행하며, 각 외국인별 모국어로 작성된 설문지를 통한 심층면담과 비공개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선박내 근로여건, 숙소환경, 임금지급 및 체불 여부 등을 기본으로 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선주의 여권압수, 인권침해 사항 등을 집중 조사·점검할 계획이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이번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 조사를 통하여 발견되는 문제점을 시정하여 외국인 어선원에게 개선된 근로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책임자	과 장	정철락 (033-520-6141)
		담당자	주무관	이경아 (033-520-6145)